

2024 러시아 대선과 향후 주요 정책 방향

강부균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044-414-1242)

김경민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kmkim@kiep.go.kr, 044-414-1507)



차 례

1. 2024 러시아 대선 전망
2. 푸틴 집권 5기 주요 정책 방향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4년 3월 15~17일 치러지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과 비교적 양호한 경제 실적에 힘입어 5선이 확실시됨.
 -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1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60~8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특히 전쟁 발발 이후에도 70%대 후반~80%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음.
 - 2023년 러시아 경제는 3.6%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쟁이 발발한 해인 2022년의 마이너스 성장(-1.2%)을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음.
 -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대선 승리 후 네 번의 대통령과 한 번의 총리를 지낸 24년간의 집권에 이어 2030년까지 총 30년의 장기 집권을 내다보고 있음.
- ▶ 푸틴 대통령이 대선을 2주 앞두고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집권 5기(2024~30년)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우호국들과 전략적 연대 강화, △기술주권 확보 및 경제안보 강화를 제시함.
 - [대외관계] 러시아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브릭스(BRICS),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세안(ASEAN),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우호국들과의 전략적 연대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경제정책] 러시아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기술주권 확보 및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 ▶ 큰 변수가 없는 한 24년을 이어온 푸틴 체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공고화될 가능성이 크나, 현재 러시아가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난제들이 예상된다.
- ▶ 5기 푸틴 정부는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해당하는 신흥국·개발도상국과의 긴밀한 연계에 주력할 전망이며, 향후 이런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 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 2024 러시아 대선 전망

■ 2024년 3월 15~17일에 치러질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함에 따라, 러시아는 오는 5월 제5기 푸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높은 국정 운영 지지율과 거대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다섯 번째 임기가 사실상 확실시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이 2년을 넘기며 장기화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쟁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70%대 후반~80%대 중반을 유지해 왔음(그림 1 참고).¹⁾
 - 지난 2월 16일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 이후에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며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2월 11일 79.4% → 2월 25일 79.6%).²⁾
 - 또한 러시아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³⁾

그림 1. 푸틴 대통령 집권 시기별 지지율 추이



주: 1) 푸틴 대통령 집권기: 1기(2000~04년), 2기(2004~08년), 3기(2012~18년), 4기(2018~24년); 총리 재임기(2008~12년).
 2) 붉은 세로선은 왼쪽부터 크림반도 합병(2014. 3.), 러-우 전쟁 발발(2022. 2.) 시기를 각각 의미함.
 자료: Левада-центр, “Одобр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6.).

- 이번 대선에는 총 4인의 후보가 최종 확정되었으나, 푸틴 대통령의 당선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할 경쟁 후보는 없는 상황임.
 - 푸틴 대통령 외에 △레오니드 슬루츠키(자유민주당 대표), △니콜라이 하리토노프(공산당 소속 의원),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새로운사람들당 소속 하원(두마) 부의장) 후보가 출마함.
 - 2024년 3월 11일 기준, 예상 투표율은 71%이며, 후보별 지지율은 푸틴 대통령이 82%로 압도적인 가운데

1) Левада-центр, “Одобр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6.).
 2) ВЦИОМ новости, “Доверие политика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6.).
 3) 통합러시아당은 러시아 상원 178석 중 138석(77.5%), 하원 450석 중 324석(72%)을 차지하고 있음.

데,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6%, △니콜라이 하리토노프 6%, △레오니드 슬루츠키 5% 등 세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함.⁴⁾

- 이에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대선 승리 후 네 번의 대통령과 한 번의 총리를 지낸 24년 간의 집권에 이어, 2030년까지 총 30년의 장기 집권을 내다보고 있음.

■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높은 정치적 신뢰도를 얻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1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60~8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그림 1 참고).
 - 정권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잠재적인 불만이 누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 재임기에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경험한 국민의 지지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⁵⁾
- 러시아 국민 대다수는 러-우 전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전쟁을 지속하기보다는 평화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상황임(그림 2, 그림 3 참고).
 - 푸틴 대통령도 여론에 부응하듯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평화 협정을 통한 전쟁 종료 가능성을 표명하고 있음.⁶⁾
 - 2022년 4월에 작성된 전쟁 평화 협정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구적 중립국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방의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현재도 이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함.⁷⁾

그림 2. 러시아 국민의 러-우 전쟁 지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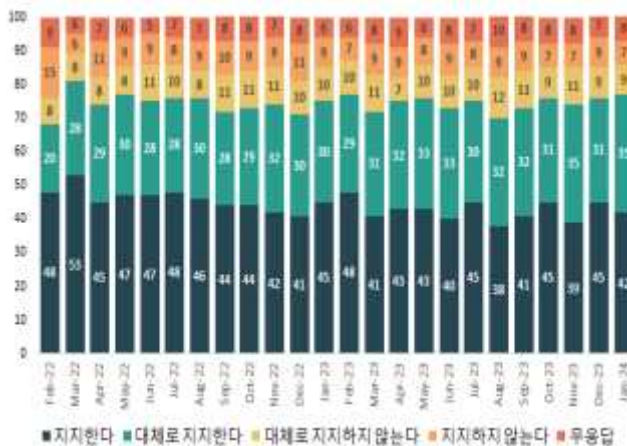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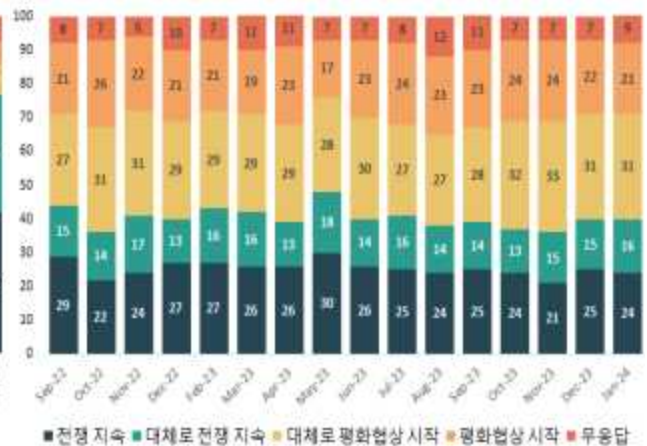


그림 3. 러시아 국민의 평화 협상 지지율

(단위: %)



자료: Левада-центр, “Конфлик с Украиной оценки конца 2023–начала 2024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6.).

4) ВЦИОМ(2024. 3. 11.),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та 2024: ожидаемые результат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11.).
 5) Maksim Kulaev(2017. 1. 30.), “Why Do the Russians Support Putin?” International Centre For Defence and Secur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11.).
 6) 러시아가 주장하는 특별군사작전(러-우 전쟁)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인 보호, △나토(NATO)의 동쪽으로는 확장 방지임.
 7) The Wall Street Journal(2024. 3. 1.), “Document From 2022 Reveals Putin’s Punishing Terms for Pea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9.).

■ 러시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전쟁과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점도 푸틴 대통령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2023년 러시아 경제는 3.6%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전쟁이 발발한 해인 2022년의 마이너스 성장(-1.2%)을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음(표 1 참고).
- 지난 2월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 경제 및 금융 시스템, 그리고 기업의 빠른 붕괴를 예상했으나, 러시아는 경제, 금융, 국방, 안보, 사회 전 분야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임을 증명했다”라고 강조함.⁸⁾

표 1. 러시아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추이

(단위: %)

구분	2022	2023
국내총생산(GDP)	-1.2	3.6
농림어업	7.0	0.1
채굴업	0.6	-2.0
제조업	-2.0	7.0
전기가스수도사업	-0.6	-0.4
건설업	7.1	7.0
서비스업	-1.3	4.5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Валовая добавленная стоимость годы ОКВЭД2,” DB 자료(검색일: 2024. 3. 6.).

표 2. 최근 러시아 교역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22		2023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수출	591.5	19.9	423.7	-28.4
수입	259.1	11.7	303.9	9.9
수지	332.4	66.6	120.1	-61.9

자료: 1) 2022년: ФТС, “Таможенная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2022 год,” DB 자료(검색일: 2024. 3. 6.).

2) 2023년: Интерфакс, “Профицит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РФ в 2023 году снизился на 61,9% до \$120,1 млр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6.).

- 러시아 제조업은 2023년 기준 7%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특히 군수품 생산량 증대와 관련된 세부 제조업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Δ 31.1% 성장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에는 레이더 장비,⁹⁾ Δ 26%의 성장률을 보인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금속 완제품’에는 무기 및 탄약,¹⁰⁾ Δ 22.7%의 성장률을 기록한 ‘기타 차량 및 장비’에는 군용 전투차량¹¹⁾이 각각 세부 품목으로 포함되어 있음.¹²⁾
- 2023년 러시아 서비스업은 4.5% 성장했는데,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이 크게 기여함.
 - 도소매업의 성장(7.3%) 2022년에 전쟁 여파로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12.8%)을 보인데 따른 기저효과로 보이며, 금융·보험업(8.6%)은 주로 중소기업 대출우대 정책에 따른 기업 대출 증가에 기인함.

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4. 2. 2), “Встреча с активом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Всё для побед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13.).

9) Центр Регистрации и Сопровождения Бизнеса, “Код ОКВЭД 26-Производство компьютеров, электронных и оптических изделий,” DB 자료(검색일: 2024. 3. 13.).

10) Центр Регистрации и Сопровождения Бизнеса Код ОКВЭД 27-Производство готовых металлических изделий кроме машин и оборудования(검색일: 2024. 3. 13.).

11) Центр Регистрации и Сопровождения Бизнеса, “Код ОКВЭД 30 - 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очи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и оборудования,” DB 자료(검색일: 2024. 3. 13.).

12)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Валовая добавленная стоимость годы ОКВЭД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6.);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은 군사장비 관련 다수 품목의 생산량과 공급량이 10~12배 증가했다고 밝힘. РИА новости(2023. 12. 25.), “Денис Мантуров: Запад охотится за нашими разработками, оружием и кадрам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13.).

- 한편 대러 제재에 따라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목인 원유·천연가스 수출량이 줄어들면서,¹³⁾ 2023년 러시아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28.4% 감소하고, 무역수지 흑자폭도 축소됨(표 2 참고).
- 러시아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생활 안정 도모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8.5%, 연금을 7.5% 인상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음.¹⁴⁾

2. 푸틴 집권 5기 주요 정책 방향¹⁵⁾

■ 2024년 2월 29일 푸틴 대통령은 대선을 2주 앞두고 연두교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푸틴 집권 5기(2024~30년)의 주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라고 하겠음.¹⁶⁾

- 푸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연두교서는 러시아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러시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목표와 과제에 대해 논하겠다고 언급함.
- 러시아 국민은 해당 연설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국가 발전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신뢰와 희망, 미래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 등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며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함.¹⁷⁾

■ [러-우 전쟁] 푸틴 대통령은 종전 의지와 서방과의 협상 의사를 밝히면서도, 러시아의 국익과 안보 실현이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함.

- 푸틴 대통령은 전쟁 종결의 핵심 원칙은 나치즘 근절을 비롯한 ‘특수군사작전’의 모든 과제 해결이라는 점을 재차 역설함.
 - 2023년 12월 14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탈나치화, 비무장화, 중립국화’ 목표를 달성한다면 평화가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¹⁸⁾
- 또한 러시아는 전략적 안정을 위해 미국과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서방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푸틴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유라시아에서 균등하고 불가분적인 안보 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관심 있는 모든 국가 및 협의체와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힘.
 - 특히 강력한 주권을 가진 러시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세계 질서가 불가능함을 강조함.

13) 2023년 러시아 원유·가스 수출량은 △원유 2억 3,430만 톤(전년대비 3.3% 감소), △PNG 99.6bcm(29.9% 감소), △LNG는 46.3 bcm(1.9% 감소)을 기록함. 인터팩스(2024. 2. 6.), “Россия в 2023 году сократила экспорт нефти на 3,3% - до 234 млн тонн,”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13.); Ведомости(2024. 2. 6.), “Россия снизила экспорт трубопроводного газа на 29,9% в 2023 год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13.).

14) 인터팩스(2024. 1. 1.), “В России с 1 января увеличится размер МРОТ и пенс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13.).

15) 2024년 연두교서를 중심으로 서술.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4. 2. 29.),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11.).

16)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4. 2. 29.),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11.).

17) ВЦИОМ(2024. 3. 2.),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 2024: оценк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11.).

1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4. 1. 1.), “Итоги года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10.).

■ [대외관계] 러시아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호국들과의 역량 결집 및 전략적 연대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푸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브릭스(BRICS),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하이협력기구(SCO)와의 협력 메커니즘 활성화, △아세안(ASEAN),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의지를 밝힘.
- 특히 브릭스의 글로벌 위상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하고,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우호국들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물류망 구축, △첨단기술 기반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 구축 계획을 제시함.
 - 연두교서에 따르면, 2028년 기준 브릭스가 세계 GDP의 36.6%를 차지할 전망이다(G7은 27.8%).
- 또한 △EAEU 통합 과정과 중국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을 연계함으로써 대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 Partnership) 실현, △러-아세안 대화 파트너십(Dialogue Partnership) 및 러-아프리카 정상회의 지속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 ※ [참고] 러-아프리카 정상회의는 2019년 10월 1차 회의(러 소치)에 이어 2023년 7월 2차 회의(러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개최됨.¹⁹⁾

클상자 1. 러시아의 2024년 브릭스(BRICS) 및 독립국가연합(CIS) 의장국 비전 선언의 주요 내용

- 2024년 1월 1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브릭스 및 CIS 의장국 수임 주요 방향과 과제를 발표함.²⁰⁾
- [브릭스] ‘공정한 세계질서와 안보 확립을 위한 다자주의 강화’를 목표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을 주도해나갈 것임을 천명함.
 - [주요 과제] △회원국간 외교정책 공조 강화, △역내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공동 대응 모색, △에너지 및 식량안보 확립, 국제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서 브릭스의 역할 제고, △은행간 협력 확대 및 상호 교역 시 자국통화 사용 확대, △과학, 첨단기술, 의료, 문화, 스포츠 분야 등의 협력 촉진
 - [CIS] 국제무대에서 CIS의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 및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브릭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하이협력기구(SCO) 등과 관계 발전을 모색할 것임을 강조함.
 - [주요 과제] △에너지 안보 보장 및 연료에너지 기술 개발, △유라시아 횡단 물류 네트워크 개발, △금융주권 강화를 위한 상호 자국통화 사용 확대, △산업협력 촉진 및 첨단기술 융합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인공 지능(AI) 기술 개발 등

■ [경제정책] 러시아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기술주권 확보 및 경제안보 강화 노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 푸틴 대통령은 2023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유럽 주요국과 주요 7개국(G7) 성장률을 앞섰으며, 오늘날 러시아는 구매력 평가(PPP) 기준 GDP로 볼 때 유럽 최대이자 세계 5위 경제 대국임을 강조함.
 - ※ [참고] 2022년 GDP(PPP) 기준, 러시아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5위를 기록함(세계은행).

19) Roscongress Foundation, “Russia-Afric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7.).

20)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024. 1. 1) “Обращение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связи с началом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в БРИКС” and “1 января 2024 года 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ереходит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 в Содружестве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3. 9.).

-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전문인력 및 첨단기술 역량 미흡, 연구개발(R&D) 투자 부족을 언급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중등직업교육 강화 및 고등교육 혁신, △첨단 스타트업 육성,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및 민간 혁신기업 투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풍부한 과학 인프라와 높은 기초과학 경쟁력(의학, 제약, 생물학, 화학, 마이크로전자 공학 및 신소재, 우주 분야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 최고의 과학 강국으로 재도약할 필요성을 언급함.
- 나아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강화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산 첨단기술 제품 및 서비스 비중 확대, △첨단 제조업 육성 및 비에너지 상품 수출 확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노동생산성 증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푸틴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서 과학기술 및 산업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혁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전쟁과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가 직면한 인구학적 과제와 높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 [참고] 러 통계청(Rosstat)에 따르면, 러시아 인구가 이민자 유입 감소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현재 1억 4,610만 명에서 2046년까지 1억 3,88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향후 22년 동안 1,540만 명의 인구 감소가 예상됨.

3. 평가 및 시사점

-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진입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24년을 이어온 푸틴 체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공고화될 가능성이 크나, 현재 러시아가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난제들이 놓여 있다고 판단됨.
- 이에 5기 푸틴 정부는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러-우 전쟁이 더욱 장기화될 경우 전시 경제 유지를 위한 국방 예산의 지속 확대와 그에 따른 재정지출 여력 감소로, 장기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푸틴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전시 상황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과학기술 및 산업 잠재력 제고를 위한 군산복합체 발전을 주요 과제로 언급함.
 -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군수품 등 소모품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함에 따라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점을 중장기 성장 저해 요인으로 지적함.²¹⁾
 - 러시아 입장에서는 방위산업을 수출산업 및 기술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과 중소기업 육성 촉진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²²⁾

21) 매일경제(2024. 2. 21.), 「경제 제재 폭격에도 ... 러, 요새작전·反서방연대로 '錢세 역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11.).

22) 서울경제(2022. 8. 18.), 「방위 산업 통한 제조업 부활」, 온라인 자료(2024. 3. 11.).

-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므로, 이런 움직임이 푸틴 집권 5기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²³⁾

■ 러시아와 서방의 지정학적 대립이 지속·심화됨에 따라, 5기 푸틴 정부는 대외협력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전망이다.²⁴⁾

- 즉 러시아는 브릭스, SCO, CIS, EAEU, 그리고 아·태 지역, 중남미, 아프리카 및 중동의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 활성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브릭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해당하는 신흥국·개발도상국들과 긴밀한 연계를 추구해나갈 것임.
- 전쟁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의 대외협력 방향이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푸틴 대통령은 2023년 9월 제8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차기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대 러시아 외교정책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러-미 관계 개선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한 바 있음.
-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환경도 쉽지 않은 상황에 봉착해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양국 관계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협력과 신뢰를 쌓아온 양국의 경제 협력 기반을 유지하고 조금씩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²⁵⁾ KIEP

23) 정민현, 강부균, 민지영, 김원기(2023),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연구보고서 23-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4) Valdai Club Foundation(2024. 1. 6.), "BRICS and Global Alternatives in the Modern Worl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3. 11.).

25) 정민현, 강부균, 민지영, 김원기(2023),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KIEP.